

울산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조성

울산시는 울산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월23일 발표했다.

울산시는 북구 모듈화단지 센터랄 공장 지붕에 930kW, 남구 매암동 경동ENS 공장 지붕에 300kW의 태양광 설비를 2013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북구 일반산업단지 22개 공장의 지붕에 총 25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울산시는 태양광 외에도 연료전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1년 수립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마스트플랜>에 따라 2017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5.6% 달성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5/23>